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300호 2026년 5월 10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오늘의 미사

부활 제6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독서 : 사도행전 8,5-8.14-17 ▶ 화답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2독서 : 베드로 1서 3,1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p>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 : 요한 14,15-21
--	---

성가 ▶ 입당: 132 ▶ 봉헌: 511,513 ▶ 성체: 166 ▶ 파견: 245



사목공지

- ① 5월 10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5월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없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5월 봉성체 안내
5월 봉성체는 5월 21일(목, 오전) 서쪽 지역, 5월 22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5월 17일~23일)
- ⑤ 매월 넷째 주 5월 23일(토), 24일(일) '한끼 나눔'

특별공지

[하와이 코나 로우(Kona Low) 폭풍 피해 복구 특별 모금]

코나 로우 폭풍으로 수해를 입은 하와이 여러 본당과 가톨릭 학교 복구를 위해 특별 모금을 실시합니다. 하와이 가톨릭 커뮤니티 재단을 통한 신자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부 참여 링크 (Hawaii Catholic Community Foundation)

<https://www.hawaiicatholiccommunityfoundation.org/support-flood-relief-efforts/>



구역 및 단체

- ① 다락방 모임
일시: 5월 10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 ② 가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5월 10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 ③ 솔렉 구역 모임
일시: 5월 12일(화) 오후 3:30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 ④ 연령회 모임
일시: 5월 17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 ⑤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5월 23일(토) 오후 5:30
문의: 김아가다 907-570-2034

※ 제10차 성령 쇄신 세미나 안내문

일시	2026년 5월 22일(금) ~ 5월 24일(일) 5월 22일(금): 16:00-22:00, 5월 23일(토): 10:00-22:00 5월 24일(일): 12:00-19:00 (참석을 원하시는 모든 신자분 참석 가능합니다.)
장소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지도신부님	김현우(바오로) 신부님 (인천교구 해양사목국 부국장)
대상	모든 교우분 (참가비 1인당 \$70)
문의	미사 전, 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부: 성정숙(벨라뎃다) 808-291-0947 • 교육부: 이영미(마리아) 808-225-1751 • 자모회: 김스텔라(스텔라) 808-469-9601 • 남성 레지오: 구도인(스테파노) 808-741-2554 • 성령 기도회: 안린지(마르첼라) 808-391-8347

기타공지

※ 성당 도네이션, 성모의밤 꽃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이살린 바올라, 김옥자 마리아



헌금

5월 16/17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5월 2일 / 5월 3일: \$11,799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08명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3,617	\$7,195	\$987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 말씀 전례(12) 말씀 전례 중 보편지향기도

미사는 하느님 백성들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느님 백성들이 하느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나아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신앙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보편지향기도는 말 그대로 보편적인 선을 지향하며,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편지향기도는 모든 이의 지향을 모아 특별한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려나오는 말로 미사전례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이가 함께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편지향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독서자들과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고 분명한 발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보편교회에서 보편지향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고 세례 때 받은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9항)이라고 정의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기도로 응답”(전례헌장 33항)함으로써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보편지향기도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이 필요한 곳을 함께 살펴보고, 간절히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알아둡시다

말씀 전례를 마무리하면서 성찬 전례를 연결해주는 보편지향기도는 인류구원을 위한 예비 봉헌이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공동체의 이름으로 결합되어 일치된 하느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 보편지향기도의 목적입니다. 보편교회는 보편지향기도의 지향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기도문은 공동체에서 준비해서 바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보편지향기도의 지향 방식은 4가지(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0항)로 봉헌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보는 매일미사 책, “보편지향기도” 옆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각 공동체 스스로 준비한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처럼 보편지향기도는 신학적인 의미를 풍부히 담고 있는 형식화된 기도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공동체가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이 예식의 의미에 더 알맞은 모습입니다.

보편지향기도는 주례사제가 주례석에서 이 기도를 이끌며, 기도 지향은 독서대나 알맞은 다른 곳에서 부제 또는 선창자, 또는 독서자나 다른 평신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이므로, 서 있는 자세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말씀 전례의 핵심은 “거룩한 대화”, “거룩한 소통”입니다. 말씀 전례는 하느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 응답하고 기도하는 예식입니다.

※ 올바른 성모 신심에 대해서

가톨릭교회는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냅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성모 신심 미사, 그리고 성모 성월에 대해서 전례적으로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성모 신심의 유래

토요일에 성모님께 봉헌하는 관습은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8세기 초 카롤링거 왕조(750-881년)의 수도원에서 당시 베네딕토 회원으로 아일랜드 출신인 알쿠인(Alcuin, 735-804)은 찰스 대제의 궁중 교사로서, 카롤링거 왕조 전례 개혁에 참여했는데, 이때부터 구체적인 성모 신심에 대한 부분이 제시됩니다. 그는 일주일 중 6일 동안 사용하는 신심 미사 양식을 만들었고, 두 개의 양식은 성모님께 영예를 드리기 위해 토요일에 배치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토요일은 성모님을 묵상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교회 안에서 큰 호응을 얻어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오래되지 않아 유럽의 전 지역으로 확산 되어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3세기 초에는 토요일에 성모님을 기념하는 관습이 수도회들의 유산처럼 자리 잡아, 트리엔트 공의회 (1545-1563년)에 뒤따른 전례 개혁 때에는 이 관습이 로마 미사 경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년)의 전례 개혁에서는 미사 기도문과 독서의 수도 늘어나고 기도문도 수정되어 ‘토요일’의 성모 신심 미사는 더욱더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2. 성모 신심 미사의 시기

주님의 신비 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나 천사들 또는 어떤 성인이나 모든 성인을 공경하는 신심 미사는 신자들의 신심을 위하여 연중 시기의 평일과 선택 기념일에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주님 생애의 신비에 관련된 미사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신비를 제외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삶의 신비에 관련된 미사는 그 거행이 전례력의 흐름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심 미사로 드릴 수 없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75항). 의무 기념일,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부활 팔일 축제 다음 부활 시기 평일에는 당연히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드리는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가 금지된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76항).

위에서 소개해드린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의하면, 신심 미사는 “연중 시기의 평일과 선택 기념일”에 바칠 수 있습니다. 곧 사순, 부활, 대림, 성탄 시기 토요일에는 신심 미사 봉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례이기에, 신심의 요소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토요일인데 성모 신심 미사를 봉헌하지 않냐고 건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라 전례주년을 올바르게 거행해야 하기 때문임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